

22. 욱의 고백

신앙고백
찬 송 : “너희 죄 흉악하나” (찬송가 255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욱기 42장 1-9절

말씀묵상

욱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오히려 욱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욱의 고난이 마치 그가 지은 죄의 결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친구들을 지적하시며 욱이 옳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욱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욱의 고백과 그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1. 욱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의 무지를 고백했습니다(2-3).

욱과 친구들은 앞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욱은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계획하신 일은 어김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함 욱에게서 우리는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우리도 욱처럼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나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2. 욱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4-6).

욱은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거침없이 말했던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욱은 자기의 형편을 알려주시는 주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던 모습을 거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한 욱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고통 받는 것이 아니며, 무죄한 상태에서 재난이 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한때 교만했던 모습까지 철저하게 회개한 욱처럼 우리도 주님께 사소하고 작은 죄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은 주의 자비하심과 욱의 신실함을 나타내셨습니다(7-9).

욱의 고난을 곁에서 지켜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제외한 채 무조건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신들의 신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한 친구들보다 욱이 더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욱을 ‘내 종’이라고 하시면서 신뢰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대신해 욱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욱을 통해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고 욱처럼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맺는말

욱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욱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적용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내용을 기록해 봅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새로 등록한 가족

등록번호	이 름	직 분	목 장	인 도 자
22-11	양 관 수	성도	3	이강우 장로님
22-12	윤 정 애	성도	3	
22-13	박 희 철	성도	3	
22-14	이 종 구	성도	3	

1. 부활절 일곱째주일

오늘은 부활절 일곱째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소식을 널리 알리며 부활의 기쁨을 이어가는 삶이되시길 바랍니다.

2. 운영위원회 모임

오늘 2부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3. 정기제직회 안내

다음 주일(6월 5일) 2부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4. 실시간 영상예배 중단 안내

이번 주 수요일(6월 1일)부터 주일2부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중단합니다. 대면예배로 모이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5. 예배위원안내

주보 2면 하단에 예배위원을 안내해 드리니
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 교우소식

[헌물] - 익명으로 오르간을 헌물하셨습니다.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목사 : 조 항 철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교육전도사 : 신새벽 지 휘 자 : 이영준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하엘
김성혜 이하림

The Te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요 1:4)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DOONJEON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031)751-7230
www.doonjeon.kr

인도 : 조항철 목사

※ 표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90장 다같이

2·3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임재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같이

※교독문	22.시편 37편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76장	다같이
기도	1부: 안혜자 권사 2부: 유인숙 권사	
성경봉독	누가복음 10장 25-37절 (신약 109면)	인도자
특송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1부: 다같이 A-MEN 2부: 911수색구조단	

말씀 『선한 이웃으로 살기』 조항철 목사

금주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6 월 봉사위원

		5월 29일	6월 5일	6월 12일	6월 19일
예배 기도	1부	안혜자	박상민	박명원	나차금
	2부	유인숙	안순조	정지영	윤종찬
	3부				
헌금위원		(5월)	1부 : 정영숙	2부 : 나차금	
		(6월)	1부 : 안상분	2부 : 임근실	

찬양	그 사랑 얼마나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320장	다같이
※축도		조항철 목사

수요예배 : 오후 7시 30분

금요심야기도회 : 오후 9시

말씀 : 정진영 목사

말씀 : 조항철 목사

새벽기도회 : 새벽 5시 30분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자을	천광우	조항철	조항철	조항철	조항철	자을

【누가복음 10장 25-3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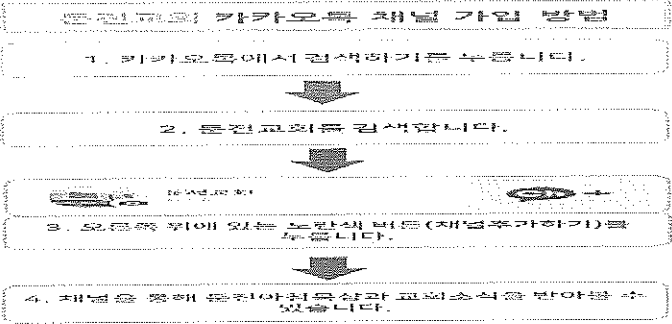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 예 배 안 내 >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30	중예배실
교육부서	유치부	오전 11:00	새성전2층
	어린이부	오전 11:00	교육관1층
	청소년부	오전 10:00	교육관2층
새벽예배		오전 5:30	새성전2층
수요예배		오후 7:30	본당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본당

<2022년 선교후원>

100주년 기념 해외 선교 : 임만호(캄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
해외 선교사 : 여기도(중앙아시아), 강경진(필리핀)
김영생(인도네시아), 홍콩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 선교)
국내 마차립교회 : 군산서수제일교회(이창구), 말씀위에 세운 교회(최석원)
국내 기관후원 : 칼 바르트센터, 지구촌구호개발연대
남신도회 선교 : 은행골 우리집(김광수)



삶의 옥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 십일조**
 김영채·조민자 김옥림 김제정 민지혜 박명원·윤영임 박영애 서인순 안순조 윤주영 이만순 이수주·박기자 이용준 이정훈 임근실 임영희 정재현 최인선
- ◆ 감사헌금**
 남영옥 명민주 박상민 박재락 안상범·김영자 유병주·조명숙 이경임 이말자 이소임 이순자 이용준·김향순 이정택 이지연 이지유 이해정 임수정 장명자 정귀자 정영숙 조병운·박영애 천광우 최광순 최미연 추사순 표금숙 무명2
- ◆ 선교헌금**
 김제정 이정택 이지연
- ◆ 건축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656,000	700,500	2,605,000	100,000	



* 온라인헌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 1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헌금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표기됩니다.